

# 폼페이오, 비핵화 일정표 들고 평양 간다

(미국 국무장관)

## '1년 내 핵 폐기' 제안 가능성...북한 진정성 확인 시범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금주 말 세번째 방북을 앞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비핵화 일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정 제안을 갖고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 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핵신고가 북한의 핵은 폐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실질적 첫 시범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이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신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이외에 '강성'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도.

때마침 마이클 블러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어떻게 그들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폐기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1년 내 핵 폐기'라는 시간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고 있다.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 제시 가능성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두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우려를 갖게 하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했다고 밝혔으나 위성 사진상으로 북한 내 시험장은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북한은 핵폭탄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절차를 제시하기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정보국(CIA)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케네디국제평화재단(CEIP)은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이라

고 불리는 핵무기 필수 요소를 제거해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위험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LAEC)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에리얼 르바이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핵 농축 활동은 영변 원자력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영변 외 장소에서의 활동은 모두 속임수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 감지되면 이는 그동안의 약속을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타륨 등도 동결시켜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폐기해나가는 전략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것으로, 불탄 보좌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39> 비운의 황제 속종

속종(肅宗, 711~762)은 당나라의 7대 황제로 현종의 3남이다. 이름은 이형으로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비운의 황제다.

모친은 양씨로 섬서성 흥농 화음의 명문가 출신이다. 710년 훗날 현종이 되는 임치왕 이용기와 혼례를 치렀고 다음해 이형을 출산했다. 이용기의 정치인 왕씨가 소생이 없어 일찍부터 그녀의 사랑을 받았다. 715년 이복형이 영이 황태자로 책봉되자 다음해 안서 대도호에 제수되었다. 하지장, 반숙, 여향, 화보빈 등 당대의 명사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업에 전념했다. 15세때 충왕(忠王)에 봉해졌다. 738년 현종은 태자 이영이 죽자 충왕 이형을 새로운 태자로 삼았다. 황제는 수왕 이모와 충왕 이형 사이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미

있었다. 마외에서 양국충이 토번 사신과 실랑이하는 중 일단의 병사들이 "재상이 이민족과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고합쳐 양국충을 죽이고 양귀비의 누이 한국부인과 재상 위방진을 죽였다. 양귀비도 고역사에 의해 목졸려 죽었다. 일순간에 태자가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결국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가고 충왕은 별도로 이동해 피난지 영무에서 756년 7월 속종으로 즉위한다. 현종이 양위함으로써 황제 교체의 정통성 시비가 불식되었다.

곽자의, 이광필, 복고회음의 군대를 끌어들이어 하북에서 안녹산군과 싸웠다. 명신 이필의 보좌를 받아 조정을 이끌었다. 제오기를 기용해 소금의 전매법을 실시해 강남지방의 풍부한 재원을 확보해 전비로 충당했다. 757년 안녹산이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해 반군 이형 사이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미

## 반군 진압에 외세 끌어들이 혼란 초래

적거렸다. "만아들을 밑에서 세운다면 누가 감히 쟁론하겠습니까"라고 주장하는 환관 고역사의 말을 듣고 충왕을 낙점했다.

그의 가정사는 순탄치 않았다. 위씨와 두씨와 두 번이나 이혼하는 아픔을 경험했다. 셋째 부인이 황후 장씨다. 장씨 가문은 조모가 현종의 모친 소성 태후와 친자매간으로 황실과 가까웠다. 19년간 재상을 지낸 이임보와 정치적으로 대립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의 이혼도 이임보 정략의 희생물이었다. 752년 이임보가 죽은 다음에는 양귀비의 친척 오파 양국충과 대립관계를 형성했다. 둘 사이의 암투가 심화되었다. 755년 하북에서 거병한 안녹산의 난으로 모든 것이 급변했다.

안녹산의 군대가 낙양을 점령하고 장안 외곽의 동관을 돌파하자 현종은 부득이 사천으로 피난을 떠났다. 이와중에 장안 외곽의 마외에서 변이 발생했다. 다수의 군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재상 양국충을 살해하고 양귀비의 처형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용무 대장군 진현례와 충왕의 측근인 환관 이보국이 꾸민 정변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보국을 보내 진현례를 끌어들이 양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극이었다. 현종이 장안을 떠날 때 충왕은 정예인 비룡금군을 통솔하고

회복하고 낙양과 장안이 회복되어 12월 속종과 태상왕 현종이 수도 장안에 입성했다. 그러나 안녹산의 부장 사사명의 제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사명은 범양에서 재봉기해 하북지방을 유린했다. 양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761년 사사명이 어린 아들 사조청에게 권좌를 넘기려다 아들 사조의에게 목졸려 죽었다. 그러나 조정의 내분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760년에는 전국에 기근이 들어 쌀 1두의 가격이 1500문에 달해 많은 백성이 굶어죽었다. 이보국과 장황후가 군권을 장악했으며 현종을 감로전에 유폐시켰다. 속종의 병이 깊어진 상태에서 건녕왕 이담이 이보국의 모함으로 죽는다. 장황후가 월왕 이예를 옹립하려다 실패해 유폐되고 현종도 세상을 떠난다. 762년 5월 충격을 받은 속종이 죽고 태자 이예가 대종으로 즉위한다. 속종의 치세는 난정의 연속이었다.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토번과 회흘을 끌어들이어 두고두고 왕조의 화근이 되었다. 이보국의 참소만 믿고 건녕왕 이담을 죽인 것도 커다란 실책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사명 제거에 실패해 반란이 수년간 더 지속되도록 한 것은 속종이 최대 실책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중당(中唐)의 혼란을 조래한 암군(暗君)이었다.

## 멕시코 89년 만의 좌파 대통령...미국과 무역·이민문제 충돌할 듯

### 오브라도르 압승 확실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64·AMLO 암로) 후보가 89년간의 우파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는 압승을 거둘 것이 확실시된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밤 예비개표결과를 통해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 노동자당(PT) 등 중도 좌파 정당으로 구성된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연대의 후보인 암로가 53~53.8%를 득표해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예비 개표결과는 전국 15만6000여 투표소 중 7000여 곳의 투표함을 무작위로 추출해 추산한 것으로,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사실상 당선자를 확정 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앞서 투표 종료 직후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파라메트리아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암로는 53~59%를 득표해 여유 있게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쟁후보였던 중도우파 국민행동당(PAN)·중도좌파 민주혁명당(PRD)의 연합후보인 리카르도 아나야(38)는 19~2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권당인 중도우파 제도혁명당(PRI)의 호세 안토니오 미드(48)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14~20%에 그쳤다.

암로는 예비 개표결과 발표 직후 "국민 통합을 이루고 독재 없이 심대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부정부패와 면책을 척결



멕시코에서 대선이 치러진 1일(현지시간) 진보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64·AMLO 암로) 후보가 수도 멕시코시 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밤 예비개표 결과를 통해 암로가 53% 대를 득표해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공공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미국과도 협력과 발전을 토대로 우호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나야와 미드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패배를 인정하며 암로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기원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대통령도 암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정권이 양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반체제 좌파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무척 고대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에 유익한 해야 할 많은 일 있다"며 당선을 축하했다.

예비개표 결과대로라면 부정부패, 폭력, 불평등에 염증이 난 멕시코 민심은 89년 만에 보수 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정권을 교체하게 된다.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낸 암로는 2006

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했다. 그는 1976년 정계에 진출한 뒤 42년간 정치 외길을 걸어온 베테랑 정치인으로, 민족 우선주의 성향과 거침없는 언사로 '멕시코의 좌파 트럼프'로 비유되곤 한다.

암로가 미국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무역, 이민, 국경장벽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